

【논 문】

清初 정책 결정기구 속의 滿洲人*

송 미 령**

┃ 차 례 ┃

1. 머리말
2. 入關 前 內三院과 6부의 滿洲人
3. 入關 後 滿洲人 大學士와 尙書들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淸 역사상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崇德年間(1636~1643)부터 順治年間(1644~1661)까지 內三院, 鄜, 理藩院, 都察院의 滿洲人 책임자를 분석하였다. 입관 전 홍타이지(Hongtaiji, 皇太極)는 군주로서의 권한을 확보하면서 커져가는 국가의 규모에 걸 맞는 행정조직을 마련해갔다. 그의 통치시기에 내삼원의 대학사들은 비트허시(Bichesī, 筆帖式) 출신들이며, 황실과 조정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반면, 6부나 이변원, 도찰원의 承政들 중에는 ‘皇族이나 ‘功臣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입관을 한 후 도르곤(Dorgon, 多爾袞) 섭정을 하는 시기에, 내삼원 대학사들은 승덕연간과 비교를 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에 6부 상서로 임명된 이들 중에는 승덕연간 후반에 6부의 책임자였던 이들이 그대로 順治 3~4년까지 그 업무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치제가 친정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승덕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A00066). 2012년 만주학회 학술회의에서 지정토론을 해주신 홍성구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글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은 이어지는 연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연간이나 도르곤 섭정기 6부 상서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황족, 공신 '키워 드는 여전히 유효했다. 오히려 그동안 황족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내삼원에 覺羅들이 임명되었고, 6부 상서들 중에도 '황족'들이 7명이나 되었다. 五大臣 家系の 인물들도 입관 전이나 도르곤 섭정기와 마찬가지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황실'이나 '공신'에 연관된 이들 외에도 世職이나 世襲을 바탕으로 정척결정기구로 진출한 이들이 있다. 이들도 일정 정도의 지위는 갖은 家系였으나, '황실'이나 五大臣 반열의 '공신'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이었다. 또한 세직이나 세작을 계승하지 않은 이들도 있으나, 그들이 이들 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내삼원, 6부, 도찰원, 이번원, 홍타이지, 순치제, 황족, 공신, 팔기

1. 머리말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齊)가 후금을 세운 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통치자의 자리는 홍타이지(Hongtaiji, 皇太極), 順治帝, 康熙帝가 이어갔고, 통치하는 영역도 중국 동북의 한 지역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호는 아이신 구룬(Aisin Gurun, 後金)에서 다이칭 구룬(Daicing Gurun, 大清)으로 바뀌었고, 나라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滿洲人¹⁾이 주류를 이루었던 후금에 몽골인이 더해졌고, 그리고 漢人들까지도 그 체제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마침내 順治 元年(1644)에 淸 조정과 皇室이 山海關을 넘어 베이징에 입성한 후에는 지금까지의 인적확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한인들을 통치체제 안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청의 통치 집단에게 두 가지 과제를 부과하였다. 하나는 새롭게 접한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통치를 확대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과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만주인이 정

1)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天聰 9년(1635)에 홍타이지가 자신들은 滿洲人이라는 선언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은 女真人으로 칭해야 하지만,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만주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만주인을 八旗滿洲에 소속된 이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과 변화’, ‘지속과 유지’의 양상이 동시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는 중앙행정조직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성장과 변화가 두드러지는 入關을 전후한 시기에, 대표적인 정책 결정 조직이라면 議政王大臣會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淸의 정치조직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고, 그 조직에서 논의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었으며, 天聰年間(1627~1635)까지 유일하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 조직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崇德年間(1636~1643)부터 이 조직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고,²⁾ 그 변화의 중심에는 권력을 장악한 군주와 연결된 內三院³⁾과 6部로 대표되는 중앙행정조직이 있었으므로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조직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都察院과 理藩院에까지 고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관을 전후한 시기의 중앙행정 기구에 대한 연구들은, 淸代 전체 행정기구를 설명하고 또 중앙행정 조직 내의 만주인, 漢軍, 한인, 몽골인의 비율을 자세하게 밝히는 연구,⁴⁾ 정책결정 기구에 초점을 맞춰 동시대적으로 조명한 연구,⁵⁾ 개별적인 중앙행정기구를 검토한 연구⁶⁾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청초 중앙행정 조직 안에서 만주인, 漢軍, 한인, 몽골인들이 어떤 비율로 임용이 되었는지, 임명비율의 변화를 鳥瞰하는

2) 姚念慈, 2008, 『清初政治史探微』遼寧民族出版社, 186~187쪽.

3) 順治 15년 內三院이 內閣으로 개편되었다(『欽定大清會典』卷19, 「官制」3 참조).

4) 樺木野宣, 1975, 『淸代重要職官の研究』東京: 風間書局; 古鴻廷, 1999, 『淸代官制研究』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郭松義·李信達·李尙英, 1993, 『淸朝典制』長春: 吉林文史出版社; 陶希聖, 1967, 『明清政治制度』臺灣商務印書館; 楊樹藩, 1978, 『淸代中央政治制度』臺灣商務印書館; 鄧永君, 2002, 『淸代翰林院制度』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5) 白新良, 2002, 『淸代中樞決策研究』遼寧人民出版社; 趙志強, 2007, 『淸代中央決策機制研究』科學出版社.

6) 神田信夫, 1970, 「淸初の文館について」, 『東洋史研究』19-3; 杜家驥, 1986, 「對淸代議政王大臣會議的某些考察」, 『淸史論叢』7; 宮崎市定, 1975, 「淸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アジア史研究』3, 京都, 同朋舍; 馮元魁, 1989, 「略論淸朝內閣的職掌與機制」, 『上海師範大學學報』2(『K24 明清史』1989. 9에 재수록); 杜家驥, 1986, 「對淸代議政王大臣會議的某些考察」, 『淸史論叢』7; 高翹, 2005, 「淸朝內閣制度述論」, 『淸史論叢』.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통치자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구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통시대적으로 중앙행정조직을 다룬 연구들은 만주인, 한인, 漢軍, 몽골인들의 숫자 변화에 집중하고 있거나, 만주인의 漢化나 漢人들의 위상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임명된 만주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각 통치자별로 중앙행정조직을 다룬 연구들은 흥타이지나 순치제의 통치시기를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 특징들에 주목하고 있어서 입관을 전후한 시기에 중앙행정 조직 내에서 만주인들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이번원을 제외한 다른 기구들은 明朝의 제도를 계승하여 설립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지금까지 한인을 중심으로 그 조직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행의 연구들에서 이미 중앙행정 조직 안에서 만주인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⁷⁾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 위에서 중앙행정조직의 변화 속에서 ‘지속과 유지’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만주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정권의 핵심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만주인들을 살펴 그들이 하나의 지방정권으로 존재하였던 시기부터 청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淸 역사상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승덕연간부터 順治年間(1644~1661)까지 내삼원, 6부, 이번원, 도찰원의 만주인 책임자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2장에서는 흥타이지가 한(Han, 汗)으로 즉위한 후 본격적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시기인 승덕연간에 내삼원, 6부, 이번원, 도찰원에 책임자로 임명한 이들을 분석할 것이다.

7) 磯部淳史, 2010, 『淸初における六部の設置とその意義』, 『立命館東洋史學』 619에서는 明朝의 6부와는 달리 황제가 직접 6부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사이에 旗王들을 배치한 것은 그들을 정치시스템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3명의 대비일러들의 세력이 약화된 후에는 旗王들의 권한도 제한하기 시작하였지만, 일률적인 원칙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磯部淳史, 2008, 『淸初入關前の内三院について—その構成員を中心に—』, 『立命館文學』 608; 姚念慈, 2008; 劉小萌, 2001,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遼寧民族出版社.

그리고 3장에서는 입관 이후인 순치연간에 도르곤(Dorgon, 多爾袞)의 攝政, 순치제의 親政으로 소용돌이치는 정국 속에서 내삼원, 6부, 이변원, 도찰원에 임명된 承政 및 尙書들을 분석하여 그 이전시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淸初의 정치상황 변화와 중앙행정 조직 내 인적 구성의 관계, 입관을 전후한 시기 중앙행정조직에서 만주인들의 인적구성이 갖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入關 前 內三院과 6部の 滿洲人

홍타이지는 즉위 이후 文館·내삼원·6부·이변원·도찰원 등 여러 중앙행정기구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누르하치 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누르하치 때에는 議政五大臣과 理事十大臣을 두어 政務를 처리하고, 안전을 심의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의 최종 결정은 버일러(Beile, 貝勒)들이 했다. 나아가 天命 7년(1622)에 누르하치가 여덟 명의 버일러들이 국정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 버일러들은 권력을 공유하는 동시에 후금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이 되었다.⁸⁾ 이렇듯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천명한 八王合議制의 구도 속에서 다른 버일러⁹⁾들과 권력을 공유하였고, 그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했다.¹⁰⁾

따라서 통치자로서 입지가 약했던 홍타이지가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개한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버일러들이 조정과 八旗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틀에서 방법을 모색하여 八大臣과 十六大臣들을 두어 의정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¹¹⁾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

8) 張德澤, 2001, 『清代國家機關考略』學苑出版社, 1쪽.

9) 홍타이지 외 3명의 대버일러는 代善(Daišan), 阿敏(Amin), 莽古爾泰(Manggultai)이다.

10) 八王合議制에 대해서는 郭松義 外, 1992; 白新良, 2002; 楊珍, 2000, 『後金八王共治國政制研究』, 『中國史研究』1을 참조하였다.

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홍타이지는 天聰 4년(1631)에서 6년(1633) 사이에 군주권력을 공유했던 아민(Amin, 阿敏)과 망골타이(Mangūltai, 莽古爾泰)를 축출하였고, 다이산(Daišan, 代善)이 홍타이지와 함께 南面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인 천총 3년(1630)에 文館을 설립하여 필요한 인재를 측근세력으로 끌어들이었다.¹²⁾ 이러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조직들인 6부가 등장하고 연이어 내삼원, 이번원, 도찰원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조직 중에서 먼저 內三院을 살펴보자. 내삼원은 內國史院, 內秘書院, 內弘文院을 일컫는 것이다. 그 업무를 살펴보면, 내국사관은 황제의起居詔諭를 기록하고 사서와 실록을 편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내비서원은 외교문서와 勅諭祭文을 작성하고 각 아문의 疏狀을 기록하였으며, 내홍문원은 古今의 政事得失에 대한 註釋을 담당하였다. 이곳에는 각각 大學士 한 명씩을 두어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내삼원은 승덕 원년(1636)에 설립되었으나, 그 모태가 되는 기구가 천총 3년(1629)에 설립된 文館이다.¹³⁾ 문관에서 수행한 일들은 한자 서적을 번역하고, 政事를 기록하여 사서 편찬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¹⁴⁾ 이 문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만주어로 문서 해독 능력을 갖추어 ‘文儒’라는 의미인 박시(Bakshi, 巴克什)¹⁵⁾가 중심이었으니, 기구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적구성면에서 만주인의 숫자가 한인들보다 많았고, 당시 문관에서 활동하던 한인관료가 그곳에서 기록하는 모든 문서가 滿洲文으로 되어 있어, 정보를 만주인이 독점하고 한인들은 소외된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¹⁶⁾을 통해서도 한인들을 등용하기

11) 張晉藩·郭成康, 1988, 『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遼寧人民出版社, 36~49쪽.

12) 문관에 대해서는 神田信夫, 1960 참조. 홍타이지가 세 명의 버릴력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해가는 과정은 宋美玲, 2008, 『天聰年間(1627~1636年)支配體制的 確立過程과 朝鮮政策』, 『중국사연구』54 참조.

13) 『欽定大清會典事例』卷11, 『內閣』1. 내국사원대학사 1인, 학사 2인; 내비서원대학사 2인, 학사 1인; 내홍문대학사 1인, 학사 2인을 설치하였다.

14) 『清太宗實錄』卷5, 天聰 3年 4月 丙戌條.

15) 福格, 『听雨叢談』卷8, 『巴克什』. 天聰 5년에 筆帖式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6) 『天聰朝巨工奏議』, 『楊方輿條陳時政奏』, 天聰 6年 11月 18日(潘喆 等編, 1984, 『清入關前史

위한 기구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시 내삼원으로 돌아와서, 승덕 연간 내삼원의 대학사였던 인물은 가린(Garin, 剛林), 范文程, 鮑承先, 히퍼(Hife, 希福) 네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만주인은 가린과 히퍼 두 사람이다. 가린은 瓜爾佳氏로 처음에는 滿洲正藍旗에 속했다가 홍타이지 사후 滿洲正黃旗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 그가 관직에 임용된 경로를 보면, 천총 8년(1634)에 禮部에서 만주인과 한인을 대상으로 만문·한문·몽골문에 능한 이들을 선발하였고 이때 가린은 舉人이 되었으며, 그 해 文館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비트허시(Bithesi, 筆帖式)가 되어 한문을 만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승덕 원년(1636)에는 내삼원의 하나인 內國史院의 대학사가 되었다.¹⁷⁾ 또한 히퍼는 滿洲正黃旗 소속으로 赫舍里氏이며, 그 역시 만문, 한문, 몽골문에 모두 능통하여 문관에 배치되었고 그 역시 비트허시 출신이었다. 그는 문관에 내삼원으로 확대 개편될 때 홍문원 대학사를 제수받았다.¹⁸⁾

이렇듯 내삼원에 배치되었던 두 만주인은 모두 비트허시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文書·簿籍·帳目 등을 담당한 이들이었다. 청초에 비트허시는 문관이나 내삼원뿐 아니라 여러 중앙부서에 배치되었고, 이들은 다른 관직에 비해 승진도 빠른 편이었다.¹⁹⁾ 가린이나 히퍼에 대해서 부친대의 세습직을 계승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가문이나 배경을 통해서 官界에 들어온 인물들이라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²⁰⁾ 다만, 히퍼는 누르하치 때에 그 형과 함께 귀부한 것으로 세직의 가능성을 생각할

料選輯』2,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17) 『清史稿』卷2, 本紀2「太宗」; 『八旗通志』卷116, 「八旗內閣大臣年表」上, 2965~2976쪽; 『滿漢名臣傳』1, 5~6쪽, 17쪽, 53~54쪽; 清史編委會 編, 1984, 『清代人物傳稿』, 上篇-1권, 中華書局, 313~317쪽.
- 18) 『八旗通志』卷147, 「名臣列傳」7, 3782~3784쪽; 『八旗滿洲氏族通譜』卷9「赫舍里氏」, 147쪽.
- 19) 筆帖式에 대해서는 최진규, 2007, 「청의 중국지배와 筆帖式」, 『중국사연구』 46 참조.
- 20) 磯部淳史(2008)는 이 승덕연간 내삼원 관원들에 대해서 유력씨족들을 측근세력으로 수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가 청초 유력씨족으로 언급한 瓜爾佳氏나 赫舍里氏는 당시 오대신의 가계와 비교를 하자면, 주요 가문으로 성장을 하는 시각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홍타이지가 육성하고자 했던 신흥씨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 있으나, 박시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²¹⁾

다음으로 6부를 보면, 그 설립은 天聰 5년(1631) 7월에 투항한 鮑承先 등 한인들이 관제정비를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한인들은 6부 뿐만 아니라 6科, 通政司 등 행정책임기구, 감찰기구, 문서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흥타이지는 그 중에서 6부 설치에만 수용하였다.²²⁾ 흥타이지는 6부를 설립한 후 각 부에 버일러 1명을 배치하여 그 부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그 아래 만주인, 몽골인, 한군 承政과 8명의 參政, 1명의 啓心郎을 두어 보좌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²³⁾ 이때 각 부의 책임자로 임명된 버일러를 보면 吏部는 도르곤(Dorgon, 多爾袞), 戶部는 더걸러이(Degelei, 德格類), 禮部는 사할리안(Sahaliyan, 薩哈廉), 兵部는 요토티(Yoto, 岳託), 刑部는 지르갈랑(Jirgalang, 齊爾哈朗), 工部는 아바타이(Abarai, 阿巴泰) 등이었다.²⁴⁾

이 글은 중앙행정조직에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승덕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교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총연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천총연간에 6부 承政으로 임명된 이들 중 확인 가능한 만주인들을 보면,²⁵⁾ 개국공신인 五大臣 중 한 사람인 어이두(Eidu, 額亦都)의 아들인 투르거이(Turgei, 圖爾格)와 철거(Celge, 車爾格)가 있다. 그리고 蘇納은 진타이시(Gintaisi, 金台石)²⁶⁾와 同族으로 여허(Yche, 葉赫)부가 망할 때 누르하치에게 귀부하였고, 누르하치의 額駙가 되었으며 牛泉額眞²⁷⁾을 제수

21) 『八旗滿洲氏族通譜』卷9, 「赫舍里氏」, 147쪽; 『清史稿』卷225, 列傳12, 「扈爾漢傳」, 9188쪽. 希福은 索尼, 索額圖로 이어지는 가계를 형성하였다. 허파는 봉작을 받은 기록을 보면, 天聰 10년에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三等甲喇章京이 되었고, 순치 9년에 精奇尼哈番(三等子)이 되었다(『清史稿』卷171, 表11, 「諸臣封爵世表」, 4, 5543쪽).

22) 『清太宗實錄』卷10, 天聰 5年 12月 壬辰條.

23) 당시에 6부를 설치하였을 때 각 부마다 만주인 承政의 숫자가 달랐는데, 吏部에는 承政 1명, 戶部에는 2명, 禮部 2명, 兵部 2명, 刑部 2명, 工部 1명을 두었다가 승덕 3년에 각 부에 승정을 1명씩 두었다. 『欽定大清會典』卷19卷20 「官制」, 3, 4 참조.

24) 『清太宗實錄』卷9, 天聰 5年 7月 庚辰條.

25) 天聰年間 6부에는 각각 4명의 승정을 두었는데, 만주인 2명, 몽골인 1명, 한인 1명이었다.

26) 金台石(?~1619)은 金台吉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여허부의 버일러로 흥타이지의 생모인 葉赫那拉氏가 그의 여동생이다.

27) 牛泉額眞은 牛泉의 책임자로 天聰 8년(1634)에 牛泉章京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順治 17년(1660)에 佐領으로 변경하였다. 니루 소속의 戶口, 田宅, 兵籍 등을 관리하였고, 正4品이었

받았다.²⁸⁾ 잉골다이(Inggūldai, 英俄爾岱)도 천총연간부터 호부승정이었는데, 아바타이의 사위이니 종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후술). 이렇듯, 천총연간 6부 승정들이 갖는 특징이라면, 오대신의 후손과 액부를 6부 승정에 임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천총연간의 6부 승정들은 승덕연간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승덕연간(6부²⁹⁾)의 구성원 중 만주인들은 <표 1>과 같다.

<표 1> 崇德年間 滿洲人 6部 承政

	滿洲人 承政	所屬旗	姓氏	비고
吏部	阿拜(Abai)	正藍旗	愛新覺羅	宗室, 누르하치 3子
戶部	英俄爾岱(Inggūldai)	正白旗	他塔喇	아바타이의 사위
	馬福塔(Mafuta)	正黃旗	納喇	滿達爾漢의 弟
	車爾格(Celge)	鑲黃旗	鈕祜祿	額亦都(Eidu)의 子
禮部	滿達爾漢	正黃旗	納喇	馬福塔(Mafuta)의 兄
兵部	宜菴	鑲白旗	瓜爾佳	費英東(Fiongdon)의 姪
	韓岱(Handai)	正白旗	愛新覺羅	宗室
刑部	郎球(Langkio)	正藍旗	愛新覺羅	覺羅
	曹海	鑲黃旗	瓜爾佳	
	吳達海(Udahai)	正白旗	愛新覺羅	宗室
工部	薩木什哈	正白旗	佟佳	

*참고자료 :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吏部承政 鞏阿岱와 工部承政 星訥는 홍타이지 사망 시기에 임명되어 포함시키지 않았음.

다. 누르하치 시대에 니루어진의 출신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각 부족의 수장들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주동적으로 귀부한 경우가 있다. 이들 중에는 누르하치보다 인구가 많은 자들도 있어서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두 번째는 누르하치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招撫에 응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투항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혼란한 상황에서 살길을 찾아서 오거나 다른 세력을 따라서 누르하치에게로 와서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니루어진이 된 경우가 있다(노기식, 2002, 「누르하치의 암반(amban)에 대한 조직화와 통제」, 『명청사연구』16, 66~67쪽).

28) 『八旗通志初集』卷154, 「名臣列傳」14, 3905쪽; 『清史稿』卷230, 列傳17 「蘇納傳」; 『清史稿』卷214, 列傳1 「后妃-太祖壽康太妃諸妃」.

29) 崇德 3년에는 承政은 만주인 1명만을 임명하였고, 左參政2명, 右參政 3명, 理事官 4명, 副理事官 6명, 滿漢 啓心郎 3명, 額哲庫 2명을 두었다(『欽定大清會典』卷19卷20 「官制」3).

천총연간 6부 승정의 키워드는 ‘功臣’과 ‘皇族’이었다. 이들 승덕연간 11명 승정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신’, ‘황족’, ‘八旗’로 항목을 구분해서 인물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승덕연간 11명의 承政 임명자들 중에서 철거(Celge, 車爾格)와 宜蓀은 3개의 키워드 중 하나인 ‘功臣’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들은 앞서도 언급한 五大臣과 관련된 인물들로 철거는 어이두의 아들이고, 宜蓀은 피용돈(Fiongdon, 費英東)의 조카이다.³⁰⁾ 천총연간의 6부 승정 중에서도 있었던 五大臣의 자제들을 승덕연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五大臣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대신은 어이두, 피용돈, 호호리(Hohori, 何和禮), 안피양구(Anfiyanggū, 安費揚古), 후르한(Hürhan, 扈爾漢)을 가리킨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혼인을 통해서 누르하치와 동맹을 맺었다. 어이두는 누르하치의 누이와, 호호리는 누르하치의 큰 딸과, 피용돈은 큰 손녀와 혼인을 했다. 천명 5년(1620) 팔기제도를 체계화하면서 어이두와 피용돈을 總兵官으로 임명했고, 안피양구·호호리·후르한은 固山額眞에 임명했다.³¹⁾

또한 이들 중에서 잉굴다이, 마푸타(Mafuta, 馬福塔), 滿達爾漢, 薩木什哈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오대신의 家系와는 구별되는 이들로 부친代에 누르하치에게 귀부하였고, 그 대가로 牛泉額眞을 제수받아 세습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薩木什哈의 부친은 누르하치 때 열 명의 아들들과 무리를 이끌고 귀부하였고, 그것으로 牛泉額眞이 되었다. 滿達爾漢의 부친 雅虎도 18戶를 이끌고 누르하치에게 귀순하였고, 그것으로 牛泉額眞이 되었으며, 滿達爾漢과 마푸타가 그것을 계승하였고, 소속된 人口를 분할하여 관리하였다.³²⁾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대해 나갈 때 주변의 부족장

30) 『八旗通志初集』卷159, 「名臣列傳」19, 3980쪽; 『清史稿』卷227, 列傳15, 9239쪽.

31) 이블린 S. 로스키(지)·구법진(역), 2010, 『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 95쪽(←Evelyn S. Rawski, 1997,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 of California Press).

32) 『清史稿』卷228, 列傳15, 「英俄爾岱傳」; 『清史稿』卷228, 列傳15, 「滿達爾漢傳」; 『八旗通志初集』卷147, 「名臣列傳」7, 3788~3789쪽; 『八旗通志初集』卷152, 「名臣列傳」12, 3859~3860쪽. 『八旗通志初集』卷154, 「名臣列傳」14, 3900~3901쪽.

들은 그에게 귀부하였는데 누르하치는 그들에게 후하게 보상을 하였고, 그 중에서 牛泉額眞은 세습이 가능한 지위였다.³³⁾ 청대에 世爵과 世職은 旗人의 핵심적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세작과 세직을 바탕으로 관직을 획득하여서 자손들이 官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³⁴⁾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은 牛泉額眞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은 五大臣과는 구별되는 신흥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승덕연간 6부 승정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또 다른 키워드인 ‘황족’을 적용해 보면, 이에 해당되는 이들은 아바이(Abai, 阿拜)·한다이(Handai, 韓岱)·우다하이(Udahai, 吳達海)·랑키오(Langkio, 郎球) 등이다. 이들은 그 성씨가 아이신기오로(Aisin Gioro, 愛新覺羅)로 앞의 세 명은 宗室로, 나머지 한 사람은 覺羅로 구별되는 이들이다.³⁵⁾ 한다이는 누르하치의 동생인 무르하치(Murhaci, 穆爾哈齊)의 아들이고, 랑키오는 탁시(Taksi, 塔克世)의 伯父인 索長阿의 후예이다. 이 황족의 범주에 색다른 이력의 인물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잉골다이는 그 자신이 황실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누르하치의 7자인 아바타이의 사위라는 점에서 혼인으로 종실과 이어진 인물이었다. 따라서 잉골다이는 신흥세력이면서 황실과 연결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승덕연간 6부 승정은 관부 버일러가 있는 상황에서 종실과 각라를 다수 임명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청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팔기에 소속된 상황을 보면, 正黃旗 2명, 鑲黃旗 2명, 正白旗 4명, 鑲白旗 1명, 正藍旗 2명이다. 승덕연간에 흥타이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旗는 정황기, 양황기, 정람기였다. 정황기는 누르하치가 기주로 있던 기였고, 양황기는 흥타이지가 군주가 된 후 장악하였다.³⁷⁾ 원래 만주 정람기의 旗主는 더걸러이었는데 천총 9년(1635)에

33) 이블린 S. 로스키, 2010, 94~95쪽.

34) 雷炳炎, 2006, 『清代八旗世爵世職研究』 中南大學出版社, 213쪽.

35) 승덕 원년(1636)에 흥타이지는 顯祖로 추존된 塔克世(Taksi)의 직계를 宗室로, 그 나머지 방계는 覺羅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宗室로 구분된 이들은 黃帶子를, 覺羅는 紅帶子를 사용하여 하여 구별하였다. 누르하치는 탁시의 長子이다.

36) 『八旗通志初集』卷139, 『宗室王公列傳』11, 3670쪽.

그가 사망하자 홍타이지는 원래 양황기 소속이었던 그의 장남 호거(Hooge, 豪格)를 정람기의 기주로 삼았다. 이로써 홍타이지와 그 아들이 팔기 중 세 개의 기를 장악하게 되었다.³⁸⁾ 11명 중에서 황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 6명이나 된 것이었다. 이것으로 군주권력을 장악해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홍타이지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천총연간까지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의정왕대신회의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시 말해서, 당시 청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정왕대신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군주의 藩屏 역할을 할 세력을 확보해야 했다. 홍타이지는 崇德 2년(1637) 4월에 각 旗마다 의정대신 3명을 더 두도록 하였다. 승덕연간 6부의 승정이었던 이들 중에서 의정대신을 맡았던 인물들이 있는데, 잉골다이, 한다이, 랑키오³⁹⁾ 등이다. 이들을 天聰 元年(1627)의 議政王大臣들의 구성과 비교를 해 보자. 원래 그 회의의 구성원들은 대버일러 다이산, 아민, 망골타이에다가, 버일러 아바타이, 더걸러이, 아지거(Ajige, 阿濟格), 두두(Dudu, 杜度), 요토, 쇼토(Šoto, 碩托), 사할리안, 호거 등으로 버일러들이 주류를 이루는 조직이었다. 이 의정왕대신회의 안에 홍타이지의 세력을 투입하는 작업은 팔기에 새로 固山額眞들을 두면서 그들도 그 회의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되었다.⁴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책결정기구인 6부의 관원들을 통해서 의정대신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겪은 후에 승덕연간

37) 마크 엘리어트 저, 김선민·이훈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140~141쪽, 577쪽 참조.

38) Arthur Hummel, 1944,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vol.1,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80~281쪽.

39) 『清史稿』卷3 本紀3 「太宗本紀」.

40) 『清史稿』卷二, 本紀2, 「太宗本紀」 이때 固山額眞으로 임명된 이들을 살펴보면, 納穆泰는 正黃旗固山額眞, 額駙達爾漢은 鑲黃旗固山額眞, 額駙和碩圖는 正紅旗固山額眞, 博爾晉은 鑲紅旗固山額眞, 額駙顯三泰는 鑲藍旗固山額眞, 托博輝는 正藍旗固山額眞, 車爾格는 鑲白旗固山額眞, 喀克篤禮는 正白旗固山額眞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6대신을 설치하여 政務를 처리하게 하였고, 팔기의 訟獄을 판결할 수 있게 했으며, 출병과 주둔도 담당하게 하였다. 이 固山額眞의 임명에서 보이는 특징은 額駙가 3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정대신의 구성을 보면, 宗室, 開國功臣의子弟, 6부의 책임자, 梅勒章京, 大學士, 學士 등도 의정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승덕연간의 의정왕대신회의는 각 부에서 논의한 것을 의정왕대신회의에서 형식적인 비준만 하거나 6부에서 논의된 것에 대체로 찬성의 의사를 표하였다.⁴¹⁾ 종실 중심의 의정회의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흥타이지는 당시 공신이나 종실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정권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정 내에서 흥타이지가 권력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 만주인 6부 승정들 중에서 잉골다이, 宜蓀, 마푸타, 滿達爾漢은 조선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使臣으로 파견되었던 인물들이다. 17세기 초반 조선은 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입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청 조정에서는 조선 측을 설득하고 압박하였는데,⁴²⁾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4명이 여러 차례 조선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朝鮮王朝實錄』, 『瀋陽日記』, 『瀋陽狀啓』 등에서 龍骨大, 馬夫大, 滿月介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잉골다이는 천총 2년(1628)부터 조선관련 일을 처리하였고, 마푸타는 천총 5년(1631)에 호부참정으로 임명되었고,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滿達爾漢은 마푸타의 형으로 그 역시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⁴³⁾ 흥타이지가 중시한 조선과의 일을 처리한 측근들이었다.

다음으로 이번원과 도찰원의 만주인 책임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이번원을 보면, 승덕 2년(1637)에 흥타이지는 蒙古衙門을 설치하였고, 그 다음

41) 姚念慈, 2008, 193~203쪽.

42) 『滿文老檔』, 崇德 元年 4月 15日, 998~999쪽; 『內國史院檔』上, 天聰 9年 6月 16日, 174쪽. ‘친하는 한 사람의 친하가 아니고, 친하의 사람들의 친하’라는 말과 함께 ‘덕’의 여부가 天子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遼-金-元-明, 그리고 淸으로 이어지는 천명의 이동과 덕의 여부를 부각시켰다.

43) 『淸史稿』卷227, 列傳14, 「英俄爾岱傳」, 9239쪽; 『淸史稿』卷228, 列傳15, 「滿達爾漢傳」, 9266~9267쪽; 『朝鮮仁祖實錄』卷24, 仁祖 9년 6월 11일(癸丑); 『滿漢名臣傳』1, 黑龍江人民出版社, 75~77쪽, 109~110쪽; 『八旗通志』卷147, 「名臣列傳」7, 3788쪽.

해 理藩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承政 1명, 參政 2명, 副理事官 8명, 啓心郎 1명을 두었다. 승덕 원년에 설치된 도찰원에는 승정과 참정을 두었지만, 정원이 없었다. 그러다가 승덕 3년에 도찰원을 개편하면서 승정 1명, 참정 4명, 이시관 6명을 두었다.⁴⁴⁾ 승덕연간에 이번원에는 볼로(Bolo, 博洛)가 줄곧 承政을 맡았고, 도찰원은 阿什達爾漢과 羅託이 승정으로 임명되었다.⁴⁵⁾ 볼로는 누르하치의 손자로 종실의 일원이고, 아바타이의 아들이다.⁴⁶⁾ 그리고 阿什達爾漢은 여허의 버일러 진타이시와 동족이며 흥타이지의 諸舅였다.⁴⁷⁾ 그리고 羅託도 종실의 일원으로 비이서(Beise, 貝子)였다.⁴⁸⁾ 또한 승덕 2년(1637) 니칸(Nikan, 尼堪), 羅託, 볼로 등에게 국정을 의논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였다⁴⁹⁾는 것으로 의정대신의 일원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황실과 혈연으로 연결된 이들이 승덕연간에 두 기구를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승덕연간 정책결정기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삼원은 6부에 비해 종실과 공신 가계의 인물들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6부는 설립 초기에 管部 버일러들을 두었는데, 이들의 권위나 세에 눌리지 않을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품급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입관 전에 내삼원은 2품의 관청이고 6부는 1품의 관청⁵⁰⁾이었던 것도 그 안의 사람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후금의 한이 된 흥타이지는 분권적인 성향이 강한

44) 『欽定大清會典』(光緒朝)卷20, 「官制」4 참조. 순치 5년에 承政이라는 명칭을 左都御史로 변경하였고, 이때 한인 좌도어사 1명을 두었다.

45) 『清代職官年表』, 中華書局, 1980; 『八旗通志(初集)』,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 中華書局, 1977 참조.

46) 『八旗通志初集』卷138, 「宗室王公列傳」10, 3649~3653쪽.

47) 『八旗通志初集』卷154, 「名臣列傳」14, 3908~3910쪽; 『清史稿』卷230, 列傳17, 「阿什達爾漢傳」, 9307~9309쪽.

48) 『清史稿』卷238, 列傳25 「車克傳」.

49) 『清史稿』卷3, 本紀3 「太宗」2, 59쪽. 이때 각 旗마다 의정대신 3명을 증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50) 『清世祖實錄』卷15, 順治 2年 3月 戊申條.

정치구조에 변화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 조직을 탄생시켰다. 3명의 대버일러와 의정회의로 대표되는 분권적인 성향의 세력들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親臣그룹을 배양한 것이 내삼원, 6부, 이번원, 도찰원의 책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승덕연간 정책결정기구 안의 만주인들은 ‘황족’, ‘공신’, ‘신홍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구성을 보면, 종실(가라포함), 공신들의 家系 등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승덕연간 정책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책임자들의 성격은 入關 이후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한다.

3. 入關 後 滿洲人 大學士와 尙書들

이 장에서는 순치연간(1644~1661) 중앙행정기구의 만주인 책임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崇德 8년(1643)에 홍타이지가 사망한 후 청 조정은 새로운 군주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처음에는 누르하치의 14자인 도르곤(Dorgon, 多爾袞)과 홍타이지의 장자인 호거(Hooge, 豪格)가 대권을 놓고 대립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홍타이지의 9자인 풀린(Fulin, 福臨)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결 구도는 팔기와도 연결되어서 正白旗·鑲白旗는 도르곤을 지지하였고, 正黃旗·鑲黃旗는 홍타이지 직계 중에서 새로운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결국 6세의 풀린을 새로운 군주로 결정하였고, 유력한 帝位 계승 후보였던 도르곤과 그의 사촌인 지르갈랑(Jirgalang, 濟爾哈朗)이 섭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⁵¹⁾ 이로써 도르곤을 중심으로 청의 정치와 행정이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뒤 도르곤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순치제가 통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순치

51) 李鴻彬, 1998, 「清初傑出的女政治家－孝莊文皇后」, 『滿族研究』2, 48~49쪽; 이블린 S. 로스키, 2010, 136~137쪽.

연간은 도르곤이 섭정을 한 시기와 순치제가 친정을 했던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 볼 것이다.

1) 도르곤 섭정기(1644~1650)

섭정이 된 도르곤은 팔기의 여러 왕들과 버일러들의 회의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각 部 大臣들의 보고를 받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이것으로 승덕연간 말기에 이미 상징적인 존재로 변해버린 管部 버일러들은 입관이후 폐지되었다.⁵²⁾ 이 시기에 내삼원,⁵³⁾ 6부, 도찰원, 이번원의 만주인 책임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도르곤 섭정기에 내삼원의 대학사를 맡았던 만주인은 가린과 키충거(Kicungge, 祁充格) 두 사람이다. 이때 가린의 소속기가 정람기에서 정황기로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홍타이지 사망 후 조정 내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가 속했던 아달리(Adali, 阿達禮)가 죄를 지어 처형되었기 때문이었다.⁵⁴⁾ 그리고 승덕연간에 대학사였던 히퍼는 도르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바로 혁직되었다. 정황기 소속이었던 히퍼가 도르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다.⁵⁵⁾ 이러한 내삼원에 입관 이후 새로 투입된 인물은 키충거였다. 그는 烏蘇씨로 만주양백기 소속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瓦爾喀에 거주했는데, 부족사람들과 함께 귀부하였다. 홍타이지는 그가 文史에 능통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발탁하였고, 6부 설립 후에는 예부 啓心郎을 역임하였으며, 순치 2년(1645) 내홍문원대학사가 되었다.⁵⁶⁾ 가린이나 히

52) 『清世祖實錄』卷2, 崇德 8年 12月 乙亥條; 『清世祖實錄』卷3, 順治 元年 正月 己亥條.

53) 順治 2년(1645)에 翰林院을 내삼원에 합쳤는데, 이에 내국사원은 내한림국사원으로, 내비서원은 내한림비서원으로, 내홍문원은 내한림홍문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내삼원에는 만주인과 한인 대학사 7명을 두었는데 많은 때에는 16명까지 있었다. 그 아래 學士, 典籍, 侍讀, 中書 등의 관원을 두었다. 내삼원의 관원수는 유동적이었다. 순치 15년에 내삼원을 내각으로 변경하였는데 殿閣의 명칭을 따른 대학사가 생겼다.(張德澤, 2001, 3~4쪽).

54) 『瀋陽狀啓』 1643년 9월 26일의 기록을 보면, 福臨의 즉위에 불만을 토로하고 도르곤을 지지했던 아달리가 처형되는 상황에 대한 서술이 있다.

55) 『八旗通志初集』卷147, 「名臣列傳」7, 3783~3784쪽; 『八旗通志』卷116, 「內閣大臣年表」上, 2968쪽.

퍼가 훙타이지 통치시기에 비트허시부터 관직을 시작한 것처럼 입관이후에도 내삼원에서 문서능력을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키충거가 계심량 출신이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훙타이지가 계심량이라는 관직을 각 부에 설치하면서 관부 버일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바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관부 버일러들을 견제하고 6부를 장악하기 위한 장치였다.⁵⁷⁾ 그러니 계심량은 조정 내에서 군주의 권력을 강화해나가는 지점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이었다. 키충거는 귀부했을 당시에는 세직을 받지 못하였고, 천총 8년에 그 자신의 공을 인정받아서 牛泉額眞이 되었다.⁵⁸⁾ 따라서 세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승덕연간(1636~1643)과 비교해서 변화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내삼원에 비해서 6부의 상황⁵⁹⁾은 어떠했을까? 순치 원년(1644)에 버일러들이 각 부를 관리하는 것을 폐지하였고, 承政을 尙書로, 參政을 侍郞으로, 理事官은 郎中

- 56) 『淸史稿』卷245, 列傳32 「祁充格傳」, 9629쪽; 『淸史稿』卷2, 本紀2, 「太宗」1, 37쪽; 『淸史稿』卷4, 本紀4 「世祖」1.
- 57) 『淸太宗實錄』卷12, 天聰 6年 8月 丁卯條. 그 부를 관리하는 버일러와 거기에 소속된 계심량의 출신 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시기 육부의 승진이나 참정과 같은 관리들은 대개 버일러들의 소속기 출신이 선발되었으나, 계심량의 경우는 예외였다. 지위가 낮은 계심량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버일러에게 예측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훙타이지는 지위가 비교적 낮은 계심량에게 감찰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그 목적은 6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張普藩, 1994, 『淸朝法制史』 法律出版社, 24~25쪽.)
- 58) 『淸史稿』卷245, 列傳32 「祁充格傳」, 9629쪽.
- 59)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입관이후 내삼원의 인적구성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데, 명 조정에서 관직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이들이 청 조정으로 유입된 것이었다. 즉, 馮銓·謝陞·李建泰 등 한인들이 내삼원에 진입한 것이다. 馮銓은 명 만력 41년(1613)에 進士가 되었고, 翰林院檢討로 관직을 시작하였다. 그는 명 조정에서 禮部, 戶部の 尙書는 물론 大學士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입관 후에 도르곤이 그를 불러들어 대학사의 직함을 주었고, 순치 2년(1645)에는 弘文院大學士兼禮部尙書가 되었다. 馮銓은 대학사 洪承疇와 함께 명조정의 票擬제도를 부활할 것을 제안하거나, 대학사 謝陞과 함께 郊社·宗廟樂章을 議定하였다. 그리고 謝陞은 萬曆 35년(1607) 進士가 된 인물로, 崇禎 7년(1634)에는 吏部尙書가 되었으며, 이후 이부와 예부의 상서와 대학사를 역임하였다. 청의 입관 후에 청 조정에 귀부하였다. 마지막으로 李建泰는 天啓 5년(1625)에 진사가 되었고, 國子監祭酒 등을 역임하였다. 崇禎 16년(1643) 吏部侍郎, 大學士가 되었다. 청 조정 이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에는 대학사로 임명되었다. 이렇듯 한인들의 인적구성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淸史稿』卷245, 列傳32 「馮銓傳」; 『淸史稿』卷109, 志84, 「選舉」4, 3181쪽 참조.

으로, 副理事官은 員外郎, 額哲庫는 主事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순치 5년(1649)에는 만주인과 한인을 각각 상서로 임명하도록 하였다.⁶⁰⁾ 도르곤의 섭정기간 동안 각부의 상서가 되었던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도르곤 섭정기 6부의 滿洲人 尙書

		滿洲人 尙書	所屬旗	姓氏	비고
吏部	1	鞏阿岱		愛新覺羅	宗室
	2	譚拜(Tambai)	正白旗	他塔喇	
戶部	3	英俄爾岱(Inggūldai)	正白旗	他塔喇	
	4	巴哈納(Bahana)	鑲白旗	愛新覺羅	覺羅
	5	噶達渾	正紅旗	納喇	
禮部	6	郎球(Langkio)	正藍旗	愛新覺羅	覺羅
	7	卓羅(Jolo)	正白旗	佟佳	
兵部	8	韓岱(Handai)	正白旗	愛新覺羅	宗室
	2	譚拜			
	9	阿哈尼堪(Ahanikan)	鑲黃旗	富察	
刑部	10	吳達海(Udahai)	正白旗	愛新覺羅	宗室
	6	郎球(Langkio)			
	11	阿喇善(Arašan)	鑲黃旗	博爾濟吉特	土謝圖汗의 후손
工部	12	星訥(Singne)	正白旗	覺爾察	

*참고자료 :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濟席哈과 陳泰는 순치 7년 12월에 도르곤 사망 시기에 임용되어 제외하였음.

*部를 중심으로 표를 구성하였고, 번호가 같은 이는 동일인물임.

앞장에서 승덕연간의 정책결정기구를 살펴볼 때 활용했던 ‘皇族’, ‘功臣’, ‘八旗’ 키워드를 도르곤 섭정기 6부 상서들을 파악하는데도 활용하고자 한다. 도르곤 섭정기에 6부 책임자로 임명된 12명의 만주인들은, 종실과 각라가 5명을 차지할 정도이다. 여전히 종실과 각라의 비중이 큰 것이며, 권력을 가진 이와의 혈연은 정치적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할 수

60) 『大清會典』卷19, 「官制」3 참조.

있다.

송덕연간에는 五大臣의 자손들이 입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르곤 섭정기에는 五大臣 家系의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대신 가계가 정황기나 양황기 소속이어서 도르곤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 인물로 아라산(Arašan, 阿喇善)이 있다. 그는 土謝圖汗으로 책봉된 奧巴의 후손이다. 奧巴는 코르친 몽골의 부장으로 초기에는 여허(yehe, 葉赫)부와 함께 누르하치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기도 하였으나, 차하르 몽골의 립단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누르하치의 지원을 받고 귀부하였다. 이에 누르하치는 天命 11년에 和碩公主를 그에게 시집보냈고 土謝圖汗에 책봉했다.⁶¹⁾ 아라산은 몽골인으로서 만주팔기에 소속되었고, 그 지위도 상당하였다.

이들 중에서 세직을 통해 관계로 들어선 이들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잉골다이 외에 三等梅勒章京을 세습한 졸로(Jolo, 卓羅), 牛泉額眞을 계승한 싱너(Singne, 星納) 등이 있다.⁶²⁾ 噶達渾은 그의 선조가 누르하치 때 귀부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집안에 어떤 세직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⁶³⁾ 이렇게 세직이 없었으나, 자신의 능력으로 세습가능한 직위를 받은 이들로써 牛泉章京을 제수받은 탐바이(Tambai, 譚拜), 一等甲喇章京을 받은 아하니칸(Ahanikan, 阿哈尼堪)이 있다.⁶⁴⁾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무공을 바탕으로 성장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 12명의 소속기를 확인해보면, 正黃旗 1명, 鑲黃旗 3명, 正白旗 4명, 鑲白旗 1명, 正藍旗 1명, 正紅旗 1명이었다. 도르곤과 2개의 黃旗의 관계는 훈타이지 사후 청 조정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고려할 때 원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황기 소속인물이 4명이나 임명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해

61) 『清史稿』卷77, 志52, 「地理志」24, 「內蒙古, 科爾沁部」; 『清史稿』卷209, 表49, 「藩部世表」1.

62) 『八旗通志初集』卷148, 「名臣列傳」8, 3804~3805쪽; 『清史稿』卷236, 列傳23 「卓羅傳」; 『八旗通志初集』卷155, 「名臣列傳」15, 3921쪽.

63) 『清史稿』卷242, 列傳29 「噶達渾傳」.

64) 『清史稿』卷172, 表12, 「諸臣封爵世表」5上.

석할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순치제 즉위 초기에는 황기 출신으로 임명된 이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순치 4년(1647) 이전까지는 소닌(Sonin, 索尼)·오보이(Oboi, 鰲拜)·톨라이(Tulai, 圖賴) 등 정황기·양황기 출신 대신들을 중심으로 단단한 연대를 유지하였으나 순치 4년을 전후하여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순치 3년(1646) 톨라이는 볼로와 함께 浙江과 福建에서 정복전쟁을 수행하다가 사망하였고, 또 다른 핵심인물인 소닌은 순치 5년(1648) 3월에 革職되어 瀋陽의 昭陵을 돌보는 일로 보내졌다가 도르곤이 사망한 이후에나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보이 역시 흉타이지 사망이후 도르곤에 맞섰던 일 때문에 견제를 받았다. 이렇듯 순치 4년을 전후하여 도르곤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 견제와 위협이 지속되자 이들의 결합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⁶⁵⁾ 따라서 정황기와 양황기 출신들은 이러한 연대가 무너진 후에 임명된 것이다. 이렇듯 정권이 바뀌면서 상서들이 속한 旗의 분포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 또 다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들 6부의 승정들 중에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민감하게 투영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부승정으로 임명된 鞏阿岱이다. 그는 顯祖로 추존된 탁시의 손자이다. 崇德 8년(1643) 8월 9일에 흉타이지가 사망했을 때, 정황기와 양황기 소속의 철거(Celge, 圖爾格), 소닌, 鞏阿岱, 오보이, 譚泰 등은 흉타이지의 장자에게 군주의 자리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鞏阿岱와 譚泰 등은 도르곤 쪽으로 돌아섰고,⁶⁶⁾ 이후 6부에서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순치 4년 이전에 정황기와 양황기 소속으로 주요 관직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도르곤 세력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입관을 전후한 시기에 구성원들의 연속성은 어떠할까? 승덕연간부터 계속해서 6부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을 보면, 12명 중에서 한다이, 잉굴다이, 랑키오, 우다하이(Udahai, 吳達海) 등이 있다. 한다이는 병부승정, 잉굴다이는 호부승정, 랑키오는 형부와 예부승정, 우다하이는 형부승정이었다.

65) 姚念慈, 2008, 292~296쪽; 이블린 S. 로스키, 2010, 137쪽.

66) 『清世祖實錄』卷63, 順治 9年 3月 癸巳條.

승덕연간 후반부에 6부의 책임자였던 만주인들 중에서 정황기와 양황기와 관련이 없는 이들은 그대로 순치 초기 3~4년까지 그 업무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도르곤 섭정기에 6부에 새로 투입된 인물들의 관직경력은 어떠한가? 탐바이는 병부참정, 바하나(Bahana, 巴哈納)는 형부참정, 졸로는 형부참정, 아하니칸은 예부참정을 맡았으니,⁶⁷⁾ 내부에서 승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르곤 섭정기에 내삼원과 6부의 만주인 책임자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이번원과 도찰원의 책임자로 임명된 만주인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입관이후에도 이번원 상서는 1명이었는데, 도르곤 섭정기에 이번원상서를 맡았던 인물은 볼로와 니칸(Nikan, 尼堪)이었다. 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덕연간에 理藩院承政이었는데, 그는 누르하치의 손자이며 아바타이의 아들이었다. 니칸은 승덕연간에 蒙古衙門承政, 理藩院右參政이었는데, 섭정기에는 理藩院侍郎을 거쳐서 理藩院尙書가 되었다. 그는 누르하치의 장자인 추연(Cuyen, 褚英)의 셋째 아들이었다.⁶⁸⁾ 입관을 하였지만, 여전히 宗室 출신들을 이번원 책임자로 임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찰원에는 순치 5년(1648)이 되어서야 한인 좌도어사 1명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만다하이(Mandahai, 滿達海)는 승덕연간에 都察院承政(도찰원 좌도어사로 명칭이 변경됨)이었고, 도르곤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都察院承政(左都御史)이었다. 졸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실이었다. 여전히 종실과 각라들의 임명이 두드러진 것이 이번원과 도찰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順治帝 친정시기(1651~1661)

입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도르곤이 순치 7년(1650) 12월 9일에 사망하자 순치제가 親政을 시작하면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순치제가 친정

67) 『清史稿』卷241, 「譚拜傳」, 「阿哈尼堪」, 9562~9563쪽; 『清史稿』卷236, 「卓羅傳」.

68) 『八旗通志初集』卷,133, 「宗室王公列傳」5, 3592~3595쪽.

을 시작한 이후 내삼원의 대학사로 임명된 이들은 <표 3>과 같다.

〈표 3〉 順治帝 親政時期 內三院(內閣)의 滿洲人 大學士

	滿洲人 大學士	姓氏	所屬旗	비고
1	陳泰	鈕祜祿	鑲黃旗	額亦都의 孫
2	雅泰	黨爾察	正藍旗	
3	額色黑(Eschei)	富察	鑲白旗	
4	車克(Ceke)	瓜爾佳	鑲白旗	
5	希福(Hife)	赫舍里	正黃旗	
6	圖海(Tuhai)	馬佳	正黃旗	
7	巴哈納(Bahana)	愛新覺羅	鑲白旗	覺羅
8	伊圖(Itu)	愛新覺羅	鑲紅旗	覺羅

*참고자료 :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순치제 친정기는 승덕연간 이후 입관과 섭정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이후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순치제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것은 이전 시기, 특히 도르곤 섭정기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대학사 임명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승덕연간과 도르곤 섭정기에 대학사를 지냈던 가련과 키충거는 도르곤 세력이었기 때문에 순치제 친정과 함께 사형되었다. 반면에 히퍼는 도르곤이 섭정을 시작하면서 혁직되었지만, 순치제가 친정을 하면서 내삼원에 복직되었다.⁶⁹⁾ 그리고 이때에 새로 내삼원에 투입된 투하이(Tuhai, 圖海)는 이전의 내삼원 대학사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비트허시에서부터 시작하여 國史院侍讀을 맡았던 경력이 있다.⁷⁰⁾ 8명의 대학사들 중에서 陳泰는 오대신 중 한

69) 히퍼와 그의 가계에 대해서는 葉高樹, 2006, 『滿洲親貴與清初政治: 都英額地方赫舍里家族的個案研究』, 『臺灣師大歷史學報』 43 참조.

70) 『八旗通志初集』卷149, 「名臣列傳」9, 3809쪽; 『清史稿』卷168, 表8 「諸臣封爵世表」1, 5345쪽; 『清史稿』卷251, 列傳38, 「圖海傳」, 9711쪽

사람인 어이두의 손자이고, 철거의 아들로, 一等侯를 세습하였다.⁷¹⁾ 그리고 세직이 있던 인물은 처커(Ceke, 車克)와 어서허이(Eschei, 額色黑)인데, 그의 조부가 누르하치에게 귀순하여 牛录額眞을 받았다.⁷²⁾ 世職과 世爵을 세습받은 이들이 내삼원에 투입되었다는 점은 그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들 8명의 소속기는 정황기 2명, 양황기 1명, 정람기 1명, 양백기 3명, 양흥기 1명이다. 도르곤의 旗였던 정백기출신은 없으나, 황제가 관할하는 정황기와 양황기 소속이 3명인데 비해 양백기 출신이 3명이나 된다.⁷³⁾ 또한 순치제의 친정과 함께 내삼원에 나타난 변화는 바하나(Bahana, 巴哈納)와 이투(Itu, 伊圖) 등 각라의 등장이었다. 그런데, 승덕연간과 도르곤 섭정기에는 내삼원에 각라들이 투입된 사례는 없었다. 순치 친정기에 내삼원(내각)은 여전히 비트허시 출신과 공신의 자제가 있다는 점은 그 이전과 다름이 없었으나, 세직이나 세작 세습자와 각라들이 대학사로 임명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순치 친정기에 내삼원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순치 15년에 내삼원이 내각으로 변경되면서 中和殿大學士, 保和殿大學士, 文華殿大學士, 武英殿大學士, 文淵閣大學士, 東閣大學士 등이 등장하는데, 내삼원 대학사였던 어서허이, 처커, 투하이, 바하나 중에서 어서허이과 바나는 내각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학사였다. 그러나 처커와 투하이는 각각 管戶部尙書事와 刑部尙書를 맡으면서 6부로 옮겼다.⁷⁴⁾ 6부로 자리를 옮긴 이들 외에는 새로 투입된 인물도 없어서 조직의 외형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구성원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한 후 6부상서로 임명된 만주인들을 정리

71) 『八旗通志初集』卷142, 「名臣列傳」2, 4708~4710쪽; 『清史稿』卷168 表8 「諸臣封爵世表」1.

72) 『八旗通志初集』卷160, 「名臣列傳」20, 4000~4001쪽; 『清史稿』卷238, 列傳25, 「車克傳」, 9491쪽.

73) 이들의 소속기에 대해서 磯部淳史(2012)는 순치친정기의 내삼원의 관원은 혼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바타이家的 양백기, 사할리안家的 정흥기 등 인물들을 등용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분석하였다(磯部淳史, 2012, 「順治帝親政期における側近機構の一考察」, 『立命館東洋史學』35, 36쪽).

74) 『清代職官年表』1, 「大學士年表」9쪽.

하면 <표 4>와 같다.

<표 4> 順治帝 親政時期 6부의 滿洲人 尙書

	滿洲人 尙書	所屬旗	姓氏	담당한 6부 상서직	비고
1	韓岱(Handai)		愛新覺羅	吏部·刑部	宗室
2	陳泰	鑲黃旗	鈕祜祿	吏部·禮部·刑部	
3	朱瑪喇(Jumara)	鑲白旗	碧魯	吏部	
4	譚泰	正黃旗	舒穆祿	吏部	
5	卓羅(Jolo)	正白旗	佟佳	吏部	
6	科爾昆	鑲白旗	愛新覺羅	吏部	覺羅
7	伊圖(ITU)	鑲紅旗	愛新覺羅	吏部·兵部·刑部	覺羅
8	車克(Ceke)	鑲白旗	瓜爾佳	吏部·戶部	
9	巴哈納(Bahana)	鑲白旗	愛新覺羅	戶部·刑部	覺羅
10	雅類	正白旗	佟佳	戶部	
11	噶達渾	正紅旗	納喇	戶部·兵部	
12	郎球(Langkio)	正藍旗	愛新覺羅	戶部·禮部	覺羅
13	阿哈尼堪(Ahanikan)	鑲黃旗	富察	禮部	
14	恩格德(Enggedei)	鑲藍旗	納喇	禮部	
15	渥赫(Wehe)	正藍旗		禮部	
16	阿思哈(Asha)			兵部	
17	蘇納海	正白旗	他塔喇	兵部·工部	
18	濟席哈	正黃旗	富察	刑部	
19	藍拜(Lambai)	鑲藍旗	佟佳	刑部·工部	
20	圖海(Tuhai)	正黃旗	烏佳	刑部	
21	能圖	正紅旗		刑部	
22	阿布蘭(Yabulan)	鑲紅旗	愛新覺羅	刑部	覺羅
23	譚布	正黃旗	舒穆祿	工部	
24	星訥(Singne)	正白旗	覺爾察	工部	
25	郭科(Goko)	鑲白旗	愛新覺羅	工部	覺羅
26	孫塔(Sunta)	鑲藍旗	覺爾察	工部	
27	穆里瑪	鑲黃旗	瓜爾佳	工部	
28	喇哈達	鑲黃旗	鈕祜祿	工部	

*참고자료 :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部를 기준으로 인물을 정리하지 않고,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이 담당했던 각 부의 상서직을 명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순치제 친정기에도 황족, 공신, 팔기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6부 상서들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승덕연간과 도르곤 섭정기에 6부의 승정이나 상서들 중에는 종실이나 각라들이 여럿이었다. 위의 <표 4>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순치 친정기에도 종실과 각라가 전체 만주인 상서들 28명 중에서 7명이나 되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외에 세직이나 세작을 세습한 이들로써 주마라(Jumara, 朱瑪喇), 穆里瑪, 喇哈達, 람바이(Lambai, 藍拜), 아하니칸 등이다. 주마라는 三等子의 작위를 세습하였고, 穆里瑪는 순치제의 친정기에 다시 정계로 진출한 오보이의 동생이다. 그들의 父親이 피옹돈의 아홉째 동생이니 오대신 가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喇哈達는 철거의 5자이니 오대신 중 한사람인 어이두의 손자이다. 순치연간에 侍衛로서 三等阿達哈哈番을 세습하였다. 승덕연간이나 도르곤 섭정기처럼 오대신 공신가계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순타(Sunta, 孫塔)는 앞에서 언급한 이들과는 달리 세직이나 세작이 없었고, 흥타이지 때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牛泉額眞을 받았다.⁷⁵⁾

이렇듯 언뜻 보기에는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한 것이 이 시기 6부 상서 임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순치제가 친정을 선언하면서 취했던 조치를 보자. 도르곤이 순치 7년 12월 9일에 사망하자 순치제는 그 달 26일에 이부, 호부, 병부에 만주인 상서를 2명씩 두도록 하고 한다이·譚泰·噶達渾·濟席哈·陳泰 등을 새로 상서로 임명하였다.⁷⁶⁾ 이들 중에서 한다이는 종실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또한 譚泰는 額駙 楊古利의 一家이다.⁷⁷⁾ 정황기와 양황기 소속 각각 1명을 둔 것이다. 흥타이지 이후 6부를 표현하는 키워드

75) 『八旗通志初集』卷141, 「名臣列傳」1, 3699-3704쪽; 『清史稿』卷249 列傳36 「索尼傳」; 『八旗通志初集』卷152, 「名臣列傳」12, 3862쪽; 『八旗通志初集』卷160, 「名臣列傳」20, 3996쪽; 『八旗通志初集』卷167, 「名臣列傳」27, 4120쪽; 『清史稿』卷172 表12, 「諸臣封爵世表」5上, 5737쪽. 孫塔의 봉작은 康熙 3년에 一等阿思哈尼哈番이 되었다. 『清史稿』卷249, 列傳36, 「蘇納海傳」; 『清史稿』卷254, 列傳41 「拉哈達傳」.

76) 『清世祖實錄』卷51, 順治 7年 12月 乙巳條.

77) 『八旗通志初集』卷146, 「名臣列傳」6, 3776~3777쪽.

인 ‘황족’과 ‘공신’이 여전히 존재하며 따라서 도르곤의 사후 정백기가 황제 관할로 재편되었지만, 그 동안 쌓였던 양금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소속기를 확인해 보면, 정황기 4명, 양황기 4명, 정백기 4명, 양백기 4명, 정홍기 2명, 양홍기 2명, 정람기 1명, 양람기 2명이다. 이 분포를 놓고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백기와 양백기 출신들이 8명에 이르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순치제가 도르곤 섭정시기에 요직을 차지했던 두 백기 출신자들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팔기 내부의 갈등이 이미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⁷⁸⁾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들의 임명시기와 기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르곤이 장악하고 있었던 정백기 소속의 만주인들은 졸로·雅賴·蘇納海·싱너 등 4명이었고, 도르곤의 동생인 도도(Dodo, 多鐸)의 기었던 양백기 소속은 주마라·바하나·고코(Goko, 郭科)·科爾昆 등 4명이다. 이들 8명 중에서 싱너와 雅賴는 각각 순치 8년 정월과 3월에 해임되었고, 바 하나는 순치 8년 4월에 도르곤 세력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그 다음해 재기용되었다. 이들은 임명된 직후 바로 해임되었다. 그리고 蘇納海가 임명된 것은 순치 17년의 일이고, 고코가 순치 11년, 科爾昆은 순치 13년에 이부상서로 임명되었다.⁷⁹⁾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백기와 양백기 출신들이 다수였다는 점으로 팔기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같은 숫자를 놓고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이 중에서 정황기, 양황기, 정백기 출신이 12명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찍는 것이다. 정백기는 도르곤이 사망하면서 황제 관할이 되었고, 정황기·양황기와 더불어 이른바 ‘上三旗’를 구성하였다. 이 상삼기는 下五旗에 비해 旗人도 많고 旗의 자원도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황제의 통제가 확실했던 旗였다. 따라서 순치제의 친정 초기에 새로 황제관할로 편입된 정백기를 강하게 장악하는 것은 쉽지

78) 姚念慈, 2008, 358쪽.

79) 『八旗通志初集』卷156, 「名臣列傳」16, 3944~3945쪽.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백기와 황제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28명의 만주인 상서들은 도르곤 섭정기의 12명의 상서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다. 섭정기간이 7년이고, 순치제가 친정을 한 기간이 11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해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것은 우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만주인 상서의 숫자를 증가시켰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는 순치 10년에야 만주인 상서의 숫자를 한 명으로 줄였다.⁸⁰⁾ 순치 8년과 9년에 6부 상서로 임명된 이들은, 한다이·陳泰·주마라·譚泰·졸로·처커·바하나·雅賴·噶達渾·랑키오·아하니칸·濟席哈·람바이·싱너·譚布 등 15명이다. 이들 중에서 譚泰와 바 하나는 도르곤의 세력이었는데 임명된 지 얼마 후에 譚泰는 사형되었고,⁸¹⁾ 바 하나는 혁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다. 譚泰의 동생인 譚布도 임명된지 5개월만에 혁직되었다. 그리고 순치 8년에는 왕과 버일러가 部務를 담당하는 것을 부활시켰다가 순치 9년에 이를 다시 폐지하였다⁸²⁾는 것으로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한 후 2년여는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간이었다는 점과 그 안정을 중실이나 각라들을 통해서 도모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시기 이변원상서, 도찰원의 좌도어사로 임명된 만주인들은 <표 5>와 같다.

80) 『欽定大清會典』(光緒朝) 卷19, 「官制」 3 참조.

81) 譚泰는 홍타이지 사망 후 군주 선출을 놓고 조정에서 갈등이 커질 때 홍타이지의 직계가 계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도르곤측에 합류하였다. 그런 인물이 순치제 친정과 함께 大學士 剛林과 祁充格는 처형을 당했는데, 그는 이부상서로 임명된 것이다. 이에 대한 사료의 내용을 보면, 그 후 그의 전횡과 도르곤에게 충성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清史稿』卷246, 列傳33, 「譚泰傳」).

82) 『欽定大清會典』卷19, 「官制」3 참조.

〈표 25〉 순치제 친정시기 이변원·도찰원 책임자

기구	만주인 상서	소속기	성씨	비고
이변원	尼堪(Nikan)		愛新覺羅	宗室
	沙齊達喇			
도찰원	卓羅(Jolo)	正白旗	佟佳	
	噶達渾	正紅旗	納喇	
	覺善	正紅旗	李佳	
	俄羅斯臣	正藍旗	郭絡羅	
	阿喇善(Arašān)	鑲黃旗	博爾濟吉特	
	屠賴(圖賴)	鑲藍旗		
	阿克善	正黃旗	愛新覺羅	覺羅
	能圖	正紅旗		
	阿恩哈			
	阿思哈(Asha)			
	寧古禮	正藍旗	托和洛	

*참고자료 : 『清代職官年表』(中華書局, 1980); 『八旗滿洲氏族通譜』(遼海出版社, 2002); 『八旗通志(初集)』(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清史稿』(中華書局, 1977)

순치제의 친정기에 이변원은 여전히 종실에 속하는 이들이 책임자를 맡았다. 沙齊達喇에 대해서는 『實錄』이나 『清史稿』 등에서 順治 11년 11월에 이변원시랑에서 상서로 임명되었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 분석이 어렵다.

도찰원의 만주인은 모두 11명인데 이들 중에서 각리는 阿克善뿐이어서 각리의 비중이 그 이전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친정을 시작한 후 2년 동안에 卓羅·噶達渾·覺善·俄羅斯臣·阿喇善 등이 좌도어사로 임명되었고, 이들의 소속기는 양황기 1명, 정백기 1명, 정홍기 3, 정람기 2, 양람기 2명이다. 도찰원의 책임자도 순치제 친정 초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찰원에서 황족의 비중은 그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세직이나 세작을 받은 이들은 있었다. 覺善은 부친이 누르하치에게 귀부하여 牛录額眞이 되어 그 직을 세습하였고, 처음에는 備禦를 맡았다가 군공을 인정받아 一等甲喇章京이 되었고, 순치 7년에 三等阿思哈尼哈番이 되었

다.⁸³⁾ 俄羅塞臣의 부친 達爾漢은 누르하치의 외조카(甥)이고 액부이며, 홍타이지가 즉위했을 때 의정대신으로 임명한 8대신 중 한 사람이었다.⁸⁴⁾

4. 맺음말

지금까지 입관을 전후한 약 30년간 내삼원(내각)·6부·이번원·도찰원의 만주인 책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皇室 家系로 구성되어 결정권을 행사하는 議政王大臣會議와 군주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버일러들을 대면하고 있던 홍타이지는 군주로서의 권한을 확보하면서 커져가는 국가의 규모에 걸 맞는 행정조직을 마련해갔다. 그의 통치시기에 내삼원의 대학사들은 비트허시 출신들이며, 황실과 조정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이들이었다. 반면, 6부나 이번원, 도찰원의 승정들 중에는 ‘皇族’이나 ‘功臣’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입관을 한 후 도르곤이 섭정을 하는 시기에, 내삼원 대학사들은 승덕연간과 비교를 할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기에 6부 상서로 임명된 이들 중에는 승덕연간 후반에 6부의 책임자였던 이들이 그대로 순치 3-4년까지 그 업무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도르곤이 군주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황기와 양황기 출신들은 기존의 정치적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관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정치적인 상황이 투영되었지만, 내삼원에 대학사로 새로 임명된 이는 비트허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6부의 승정들 중에는 ‘황족’과 ‘공신’에 연관된 이들이 여럿이었다.

순치제가 친정을 하면서 도르곤 섭정기에 대한 청산작업이 있었을 것으

83) 『八旗通志初集』卷157, 「名臣列傳」17, 3961쪽, 『清史稿』卷241, 列傳 28, 「覺善傳」, 9550쪽, 『清史稿』卷171, 表11, 「諸臣封爵世表」4.

84) 『八旗通志初集』卷165, 「名臣列傳」25, 4084~4085쪽.

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정백기 소속의 상서들이 줄어든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승덕연간이나 도르곤 섭정기 6부 상서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황족’, ‘공신’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했다. 오히려 그동안 ‘황족’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내삼원에 覺羅들이 임명되었고, 6부 상서들 중에도 ‘황족’들이 7명이나 되었다. 오대신 家系의 인물들도 입관 전이나 도르곤 섭정기와 마찬가지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황실’이나 ‘공신’에 연관된 이들 외에도 世職이나 世爵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기구로 진출한 이들이 있다. 이들도 일정 정도의 지위는 갖은 家系였으나, ‘황실’이나 五大臣 반열의 ‘공신’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이었다. 또한 세직이나 세작을 계승하지 않은 이들도 있으나, 그들이 이들 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초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의정왕대신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그 조직은 황실과의 혈연이 그 구성원들의 위상을 결정하였다. 입관을 전후한 시기 청의 군주들은 이 조직을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정책결정기구를 통해서 통치를 하였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승덕연간부터 순치연간까지 내삼원(내각)을 제외한 6부, 이변원, 도찰원의 만주인 책임자들 중에는 정치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황실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이들과 누르하치 때의 五大臣의 후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 이외에 牛泉額眞과 같은 비교적 낮은 세직이나 세작을 세습하거나 자기 代의 武功으로 세직이나 세작을 받은 이들이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초 정책결정기구 속의 만주인들은 황실과 연결되거나 무공을 바탕으로 한 세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청초에 정책결정 기구 속에서 ‘황족’, ‘공신’과 관련된 이들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이것에 청대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는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崑岡 等編, 1976, 『欽定大清會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_____, 1999, 『欽定大清會典事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滿文老檔研究會, 1955 『滿文老檔』東洋文庫.
潘喆 等編, 1984, 『清入關前史料選輯』2,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鄂爾泰 等修, 1986, 『八旗通志(初集)』, 東北師範大學出版社.
任國緒編, 1991, 『滿漢名臣傳』1, 黑龍江人民出版社.
錢實寶, 1980, 『清代職官年表』, 中華書局.
趙爾巽 等撰, 1977, 『清史稿』, 中華書局.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985,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歷編』, 光明日報出版社.
弘晝 等 編, 2002, 『八旗滿洲氏族通譜』, 遼海出版社.
『清世祖實錄』, 『清太宗實錄』, 中華書局, 1993.

2. 단행본

- Arthur Hummel, 1944,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vol.1*,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古鴻廷, 1999, 『清代官制研究』, 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郭松義·李信達·李尙英, 1993, 『清朝典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陶希聖, 1967, 『明清政治制度』, 臺灣商務印書館.
雷炳炎, 2006, 『清代八旗世爵世職研究』, 中南大學出版社.
마크 엘리엇(저), 김선민·이훈(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白新良, 2002, 『清代中樞決策研究』, 遼寧人民出版社.
楊樹藩, 1978, 『清代中央政治制度』, 臺灣商務印書館.
姚念慈, 2008, 『清初政治史探微』, 遼寧民族出版社.
植木野宣, 1975, 『清代重要職官の研究』, 風間書局.
劉小萌, 2001,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遼寧民族出版社.
이블린 S. 로스키(저)·구범진(역), 2010, 『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
張普藩, 1994, 『清朝法制史』, 法律出版社.
張晉藩·郭成康, 1988, 『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遼寧人民出版社.
邱永君, 2002, 『清代翰林院制度』,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趙志強, 2007, 『清代中央決策機制研究』, 科學出版社.

3. 논문

- 高翔, 2005, 「清朝內閣制度述論」, 『清史論叢』.
- 宮崎市定, 1975, 「清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アジア史研究』 3, 同朋舎.
- 磯部享史, 2008, 「清初入關前の内三院について—その構成員を中心に」, 『立命館文學』608.
- _____, 2010, 「清初における六部の設置とその意義」, 『立命館東洋史學』619.
- 杜家驥, 1986, 「對清代議政王大臣會議的某些考察」, 『清史論叢』7.
- _____, 1986, 「對清代議政王大臣會議的某些考察」, 『清史論叢』7.
- 神田信夫, 1970, 「清初の文館について」, 『東洋史研究』, 19-3.
- 李鴻彬, 1998, 「清初傑出的女政治家-孝莊文皇后」, 『滿族研究』2.
- 張德澤, 2001, 『清代國家機關考略』, 學苑出版社.
- 최진규, 2007, 「청의 중국지배와 筆帖式」, 『중국사연구』46.
- 馮元魁, 1989, 「略論清朝內閣的職掌與機制」, 『上海師範大學學報』2.

■ Abstract ■

Manchu Bannermen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Early Qing Empire

Song, Mi-Ryung

This paper aims to explain Manchu Bannermen' appointed pattern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early Qing empire. Especially, this article focus on organization of manchu officers of the main institutions under Hongtaiji and the Shunzhi Emperor.

As you know, during Hongtaiji's early reign, the Deliberative Council of Princes and Ministers(議政王大臣) was an advisory body for the monarch. But, Hongtaiji gradually set up the Inner Three Courts(內三院), the Six Ministries(6部), the Censorate(都察院) and the Lifan Yuan(理藩院), he had strengthen the powers of the monarch. The Inner Three Courts and the Six Ministries were main policy-making body during the early Qing period.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at emperors appointed someone.

These organizations were responsible for deciding major policies of the Imperial government. The number of officials comprising organizations varied from time to time, they staffed mainly by members of the Imperial clan or descendants of Founding contributor. These flow continued even the Shunzhi Emperor started to rule personally.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early Qing empire, becoming the officials of these organizations, important factors were the Imperial kinship and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s. How these flow change in the Kangxi period? I will continue to research on this topic.

Key words : the Inner Three Courts, the Six Ministries, the Censorate, the Lifan Yuan, Hongtaiji, the emperor Shunzhi, the Imperial clan, Founding contributor, Eight Banners
